



①진각종 창종 60주년을 맞아 2007년부터 불사를 시작한 진각문화전승관이 5년만에 완공돼 위용을 드러냈다. ②지상 7층에 전시된 목조형태의 전승관 조형물을 기자들이 둘러보고 있다. ③ 지상 4층에 마련된 중앙종회의 회의장 ④지하 1층에 있는 강당내부. 음악회 등 공연장으로 주로 쓰일 예정이다. ⑤지상 6층에 위치한 수행공간인 '진호국가도량'. 종단의 주요 행사가 불행된다.

# 오불과 육자진언 상징한 전승관 완공

## 진각문화전승관 10월 30일 낙성법회...음악회 형식으로 열어

창종 60주년을 맞아 2007년부터 불사를 시작한 진각문화전승관이 10월 23일 드디어 5년만에 위용을 드러냈다.

진각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완공된 진각문화전승관은 진각종의 중심사상인 삼밀수행의 가치를 세우는 교리적 공간배치로 건축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10월 30일 전승관 헌공불사(낙성법회)에 이어 기자들에게 미리 공개한 진각문화전승관의 건축적 의의와 실내 공간들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총본산 성역화 불사...밀교 교리 따른 공간 배치**  
전승관을 비롯한 총본산 성역화 불사의 특징은 한마디로 밀교교리에 따른 공간적 배치와 생활불교의 철학을 건축 구조물에 투영했다는 것이다. 중심 뼈대는 밀교의 금강계 만다라와 오불의 배치구조를 공간 배치에 반영했다. 밀교의 오불은 중앙에 주존인 비로자나불(대일여래), 동쪽에 아축불, 남쪽에 보생불, 서쪽에 아미타불, 북쪽에 불공성취불(석가여래)을 둔다.

바로 이 교학적 의미에 의해서 진각 성역화사업의 불사를 진행중이다. 다시 설명하면 이번에 완공된 전승관은 주불인 비로자나불의 위치에, 동쪽에 있는 탑주심인당(수행 불사)은 아축불의 위치에, 교육관(교육 불사)은 보생불, 진각문화국제체험관(문화 불사)은 아미타불, 진각복지센터(복지 불사)는 불

공성취불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다. 현재 진각문화전승관과 탑주심인당 불사가 마무리 됐으며, 나머지는 2년내에 완공할 계획이다. 특히 각각의 건물들은 진각종의 교육 포교 복지 3대 사업과 함께 이를 대사회적으로 회향할 문화 사업의 중심도량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 전승관 외부는 육자진언, 내부 37존 의미

외형적으로는 진각종 수행법인 '옴마니반메흠' 육자진언을 상징하는 6층 탑형식의 현대적 해석을 반영했다. 밖에서 보면 1~4층은 기단에 해당하고 육개양식의 지붕이 3개층을 구분한다. 보주 양식의 상륜부도 올려 탑형식을 그대로 적용했다.

육개양식의 3개층은 신(身)구(口)의(意) 삼밀의 생활불교 실천의지를 표현했다. 기단부에 해당하는 4개층은 부모와 중생, 국가, 삼보 등 4개의 은혜를 상징한다. 진각종의 4가지 큰 은혜는 창종주 회당 대종사의 대표적인 가르침이다.

전승관 실내 37존의 의미를 구현했다. 전승관 내부 중앙은 보주 양식의 상륜부로부터 빛이 내리려와 각층 중앙에 원형의 빈공간을 통과해 가장 아래 층까지 투과하도록 했다. 향후 이 자리에는 대탑을 세울 계획이다. 이를 중심으로 36개의 기둥이 각층을 받치고 중앙의 빛이 통과하는 원형 공간이 더해져 37존의 위상이 드러나도록 했다.

### 총 9층에 수행 및 문화공간 등 갖춰

진각문화전승관은 모두 9층으로 구성돼 있다. 지하 2층과 지상 7층이다. 지하는 주차장과 설비, 강당

과 소회의실 연회실 등이 들어선다. 지상은 외부에서는 7층이지만 내부는 6층으로 보이게 건축됐다. 이는 진각종 수행의 근본인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흠을 상징한다.

지상 1층은 전시 및 홍보공간으로 종단의 역사 자료를 전시하며 뒤편 실외에는 종조사리탑을 세워 참배공간으로 활용된다. 문화체험공간인 2층에는 다도체험실, 진각복지법인 사무실, 비로자나청소년 협의회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이어 지상 3층은 종무행정공간이다. 통리원과 교육원, 진각대학원 연구실, 부장실, 소회의실 등이 위

### 진각종 총무원 성역화 전반기 사업 마무리 내부 총 9층...종무행정, 수행, 문화공간 등 외부는 육자진언 교리 상징하는 6층탑 형식

치하며, 지상 4층에는 소·대회의실, 원장실 등이 들어선다. 지상 5층은 체류공간으로 단체 체류수행이 가능한 대종공간이다. 숙소와 샤워실 등을 갖췄다. 지상 6층은 종단의 주요불사를 진행하는 '진호국가도량'으로 활용된다.

마지막 지상 7층은 상하층으로 나뉘어 진다. 하층 부분은 세계 주요 대장경을 봉안한 장경실과 종단 유물을 보관하는 수장고가 들어선다. 상층부분은 가지관정도량으로 종단 교법행사시 밀교의 가지관정을 봉행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특히 이 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비밀공간이며 진각종 스승들의 관정불사를 봉행하기 위한 곳으로 사용될 예정

이다. 관정은 이마에 청수를 뿌리는 의식으로 현교의 연비에 해당한다.

### 낙성 법회, 문화행사 융합한 색다른 시도

진각문화전승관 헌공불사(낙성법회)는 이제부터 진각종 눈길을 끈다. 일반적으로 낙성식은 경과보고와 축사, 법문 등으로 법회형식을 갖추는 게 일반적인 불교계의 관례다. 하지만 이번 전승관 낙성식은 '법회와 문화행사'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로 치러졌다.

김회경씨가 작곡하고 장용철씨가 작사한 진각성존 회당대종사를 추모하는 교성곡을 총 4부로 나눠 여기에 맞춰 법회를 진행했다.

1부 '불법은 체오 세간법은 그림자라'가 끝난 뒤에는 개식사와 오불 헌공다례, 강도발원 등을, 2부 '금강원의 죽비소리'의 연주 후에는 경과보고와 혜정 통리원장의 기념사가 있었다.

역시 3부 '눈을 떠라'가 끝난 뒤에는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사와 내빈소개가, 마지막 4부 '진동하네 진언항기' '옛날에는 의발이요, 이제는 심인이라' 후에는 폐식사가 있었다.

총무부장 무의 정사는 "이번 낙성법회는 그동안 불교계에서 전혀 시도되지 않은 새 형태의 법회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이는 단순 낙성식이 아닌 진각종이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불사를 위한 종단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월 30일 헌공불사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글=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 혜정통리원장 인터뷰

#### "11월부터 국제관·교육관 착공"

"이번에 완공된 진각문화전승관은 진각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의 전반기 불사 마감을 의미합니다. 또한 11월에 착공되는 진각문화국제체험관과 교육관 불사는 후반기 성역화 불사에 해당되지요."



진각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혜정 통리원장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밝혔다.

이번에 완공된 진각문화전승관에는 2년간에 걸친 국고보조금 600여억원과 종단예산 105억원 등 총 165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진각문화국제체험관과 교육관은 2년 내 완공을 목표로 약 83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특히 진각문화국제체험관은 밀교수행을 체험하는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밀교문화 전승을 위한 해외 인적 불교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게 목적이다. 또한 교육관에는 유치원과 다문화가정 교육시설이 들어선다.

혜정 통리원장은 "전승관은 밀교교리의 의미를 공간배치를 통해 그려내고, 정제된 부동의 건물에서 벗어나 활동중심의 생활불교 터전으로 발전시키는 데 설계의 주안점을 뒀습니다. 특히 총무원에는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시는 삼밀수행의 도량으로서 공간자체가 법계만다라 불보살의 공간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상 1층에는 종조사리탑도 건립해 종도들의 수행도량으로서의 역할도 병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주일 기자

# 성지순례는 미암사로, 방생은 백마강으로

세계최대 와불, 의자왕 출가한 곳, 소원성취 쌀바위, 진신사리증과, 인체에 효험약수 (점심공양, 입장료 무료, 단체 및 개인 성지순례 불자님을 환영합니다)

### 미암사의 연혁

미암사는 부여에서 서쪽 보령 방향으로 16km쯤 되는데, 부여에서 15분쯤 가다가 구룡천을 따라 40분 국도로 4km정도 올라가면 왼쪽으로 금북정맥 계향산이라는 아름다운 명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백제시대 침류왕때 쌀바위에 유씨 부인이 공을 들여 쌀도 나오고, 자손도언어 소원도 성취했다 하여 큰 영험이 있으므로 쌀바위(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이름을 따서 무양계사 쌀미(米), 바위암(岩), 미암사(米岩寺)라 하였다. 사촌마을을 미암부락이라고 했다.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응용 평가센터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원적외선이 92.1% 방출 됨으로 노화방지, 성인병 제거, 중금속제거, 곰팡이 번식방지, 신진대사 촉진, 혈액순환 등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미암사 만청스님은 그 후 몇차례 전소되어 일부 복원 하고 있으며, 지금은 다시 전통사찰 양식으로 고종반야 복원 불사 중에 있다. 또한 1998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던 바, 2004년 11월 친견당시 자연적으로 3과로 자리를 옮겨 증과된 신비한 기적을 일으켰으며 2010년 9월 10일 진신사리 1과를 부여 백제 재현단지 능사에 기증 하였다.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백제권 불교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부동정심의 대원력을 세워 국운융창, 국민화합을 위한 대자대비하신 삼계의 도사 큰 스승이신 석가모니부처님 세계최대열반상을 2005년 4월 17일 미암사 도량에 전국사부대중의 동참으로 원만성취 조성을 회향하게 되어 점안식을 봉행하게되었다. 소원성취기도도량 불교성지 미암사에 오셔서 악업은 소멸하고, 무량공덕 쌓으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오. 적멸보궁 세계최대열반상 불교성지 미암사는 성지순례코스로 가장 적합하며, 찾아오시는 불자들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미암사 TV. 라디오방영 사례

mbc 드라마계백 / kbs2 전설의고향 / mbc 라디오 전설따라삼천리 / sbs 생방송투데이 / kbs1 패지나칭칭 / kbs2 생생정보통 / mbc 공감특별한세상 / kbs, vj특공대 / mbc TV특종놀라운세상 / sbs 출발모닝와이드 / kbs2 굿모닝 대한민국 / kbs2 생생정보통 / 불교tv / cmb생방송뉴스 / 실버TV만청문화행사 / tjb 특집프로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 / 팩스 041)832-1187